

# 양방향 '똑똑한 TV' 광주·전남서도 본다

### KT '인터넷TV' 서비스 시작 원하는 프로그램 선택 시청 실시간 지상파 방송은 제외

쌍방향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똑똑한 인터넷 TV를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KT 전남본부가 최근 인터넷 TV 서비스인 메가 TV를 광주·전남 지역의 메가팩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부터다.

◇메가 TV, 뭐가 좋지? = 메가 TV는 TV에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 가입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지난 7월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된 서비스가 지난 5일부터 광주·전남 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된 것.

소버린을 입장에서 한자로 텔레콤의 '하나TV' 외에 메가 TV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그만큼 선택권도 넓어진 셈이다.

실시간 지상파 방송은 제외됐지만 보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마음대로 골라 볼 수 있다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리모컨 하나만 쥐고 있으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지 않아도 영화를 보면서 TV로 인터넷, 신문 보기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0메가(Mbps) 이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제공되는 콘텐츠는 2만여개로, KT는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문형 비디오(VOD)서비스로는 국내외 영화를 비롯해 유아·에니메이션 서비스와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인기 드라마, 연예오락, 시사 교양 등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양방향 서비스는 TV 신문과 날씨 2종이 선보였다.

◇과연 인기를 끌까? = 한국통신사업자연



합회가 과약한 KT의 광주·전남지역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7월말 기준 45만여명. 이들 중 메가 TV의 전 단계인 '메가 팩스 TV' 가입자는 3천명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가 시작되더라도 가입자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특히 현재 IP TV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 공중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 방송 등을 함께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용 요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속도가 느린데도 참고 견디는 가입자들이 많은 점과 보급률이 높지 않은 디지털 TV를 갖춰야 제대로 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도 가입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KT 전남본부 측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IP TV 법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 등은 조만간 풀릴 것"이라며 "인터넷 TV가 상용화되면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KT의 TV포털 '메가 TV'가 시작되면서 하나로 텔레콤의 하나 TV와 본격적인 인터넷 TV 서비스 경쟁이 시작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장난서 범죄로...컴퓨터 바이러스 25년

### 고교생이 친구 놀리려 만들어 웬·악성코드 등 다양하게 진화

매일 백신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것, 상당수 직장인들의 업무 중 하나다.

인터넷이나 e-메일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면서 컴퓨터 사용자는 물론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컴퓨터 바이러스다.

친구들을 골탕먹이려던 한 미국 고등학교생의 장난기로 만들어진 뒤 25년 동안 원이나 악성코드 등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범죄 행위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최초 컴퓨터 바이러스로 꼽히는 '엘크 클로너'가 만들어진 지 25주년을 맞아 바이러스의 역사를 소개했다. 지난 1982년 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에 살던 리처드 스토크라드는 '엘크 클로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당시 15세였던 스토크라드가 친구들에게 장난을 걸기 위해 만든 '작품'은 당시 주종을 이루던 '에플2' 개인용컴퓨터(PC)를 통해 전염되는 프로그램. '일도나' '엘스 도스'같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에서 동작하는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던 파키스탄인 형제가 1986년에 만든 '브레인'이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응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 바이러스는 사용하는 PC 화면에 제작자들의 컴퓨터 가게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등 요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의 피해만을 쳤지만 놀라운 전염 속도로 악명을 떨쳤다.

이후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이메일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들이 잇따라 등장

했다. 1999년의 '멜리사'를 비롯, 2000년의 '러브', 2003년의 '소빅'은 이메일 첨부파일 형태로 전염되고 특정 PC에 침투한 다음 저장된 이메일 주소 목록을 이용해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해 냈다.

국내의 사상 최악의 컴퓨터 바이러스 대란은 지난 1999년 4월 26일 발생한 CIH 바이러스.

컴퓨터 부팅 기능을 아예 망가뜨리거나 하드 디스크 모든 데이터를 못쓰게 만드는 'CIH 바이러스'는 국내 컴퓨터 역사상 최대규모의 피해를 기록하며 전 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감염 신고 건수도 4월 26일 하루 동안만 1천717건, 2000년 3월 676건에 달했다.

컴퓨터 바이러스들은 인터넷 메신저나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이용해 PC 이용자들을 괴롭

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대전화용 바이러스들까지 창궐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 바이러스들이 예전처럼 높은 전염력을 갖는 대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오래 잠복하는 특성을 갖는데 전산보안 업계에서는 바이러스 제작자들이 유명세보다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대신 여러가지 유인 수단을 이용해 사용자들 특정한 웹사이트에 들르게끔 유도하는 방식 역시 최근 악성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형이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현재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서비스 시장 규모가 380억달러로 2010년에 670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연합뉴스



### 범죄행위 이용...피해자 양산 휴대전화 바이러스도 창궐

## 애플사 MP3 플레이어 '아이팟 터치' 내달초 국내 출시



세계적 대박 상품인 미국 애플사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iPod) 라인의 신제품 '아이팟 터치(iPod Touch)'가 출시됐다.

8GB(기가바이트)와 16GB, 2가지 모델로 출시되는 아이팟 터치의 국내 출시 예상 가격은 32만4천원의 8GB의 경우 32만4천원, 16GB 제품은 43만4천원. 국내에서 10월 초부터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팟 터치는 음악뿐 아니라 사진과 비디오(동영상) 파일까지 저장 가능하며 아이폰과 같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화면(8.9cm)을 사용해 손가락으로 사진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두께는 0.8cm.

또 애플 컴퓨터의 웹브라우저 사파리(Safari)를 통해 구글, 야후 등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애플 측은 "무선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내장형 와이파이(Wi-Fi) 기술을 탑재한 아이팟 터치 이용자들은 전미 대륙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아이팟 터치의 화면에 자동으로 스타벅스 로고가 떠오르며 사용자에게 무선랜이 깔린 스타벅스 매장이 가까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는 것.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골드번호로 바꿔볼까

### SK텔레콤, 1만1,625개 추첨 통해 배정

SK텔레콤은 10일부터 11월4일까지 추첨을 통해 골드번호를 매주 1천400개씩, 총 1만1,625개를 배정하는 '골드번호 안전정복' 이벤트를 진행한다.

골드번호는 '0000', '7777', '1004'처럼 기억하기 쉬운 휴대전화 뒷번호를 일컫는 말로, SK텔레콤은 최근 새로운 국번 대역을 부여 받아 선호 번호를 추첨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매주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한 번만 응모할 수 있고,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추첨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휴대전화 사용자는 SK텔레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응모하면 된다.

"20XX" 국번과 연결된 골드번호 당첨자는 WCDMA(3세대 서비스)에 신규 가입해야 하고 나머지 국번을 사용한 당첨자는 기존 CDMA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당첨된 번호는 본인 명의의 7일 이내에 신규 가입 혹은 번호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식별번호는 010으로 바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문제풀이 9월 3일 개강  
공인중개사시험 1위

361-8111 / 529-8111

**이태리가구 전문점**  
만족 - 클래식

최고급 나무, 소파, 침대, 식탁 등 편안하신 가격으로 판매 합니다

0621236-3557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 한입선점 초우 허타디스크

NAVY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주세요

문의 10621531-3636, 531-0700  
523-4800, 011-9612-5530